

아이와 오늘 뭐하지?

52주 체험학습 설계책

함께 고르고, 자세히 보고,
우리 말로 남기는 하루



실전 해설 32개 · 동선 설계 12개 · 52주 미션

이 책을 쓰는 법

초등 자녀와 보호자를 위한 실행 가이드 · 어린 동생이 함께하는 활동은 조절해 사용하세요.

처음 15분

가족 질문을 한 문장으로 고른 뒤 1장의 한 장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장소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후보 두 곳만 비교합니다.

출발 전 10분

시설 공식 안내에서 예약·운영일·촬영·접근성을 확인합니다. 이 책의 동선은 가상 설계 예시이며 현장 답사 인증이나 예약 보장이 아닙니다.

현장 10분

모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고른 단서 하나, 궁금한 질문 하나, 자기 생각 하나를 남깁니다.

귀가 후 10분

관찰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짧은 기록을 완성합니다. 52주 계획은 자유롭게 순서를 바꿔 쓰는 주제표입니다.

이 책의 약속

학교 성적 향상이나 심리 진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활동 시간은 조절용 제안이며, 기관의 수업·안전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물은 아이의 실제 관찰과 자기 언어입니다.

목차

필요한 주제부터 펼쳐도 각 활동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01 우리 가족의 하루를 함께 설계하기 05
- 02 나이가 달라도 같은 하루를 배우는 법 10
- 03 과학처럼 묻고 증거로 답하기 15
- 04 역사 속 흔적을 증거로 읽기 20
- 05 생태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기 25
- 06 예술 앞에서 정답 없는 대화 나누기 30
- 07 예산·날씨·접근성·안전을 한꺼번에 준비하기 35
- 08 다녀온 하루를 글과 포트폴리오로 남기기 40
- 09 상황별 동선 설계 12선 45
- 10 52주 질문과 기록 계획 57
- 11 기록 완성 예시와 편집 기준 70
- 12 출처·이용 범위·제작 정보 74

첫 체험은 한 가지 질문으로

가상 예시 · 어느 동네 공원에도 맞춰 바꿀 수 있는 60분 설계

오늘의 질문

사람들은 공원에서 어느 자리에 오래 머물까?

10분 · 계획

보행로와 휴식 가능한 구역을 보호자가 확인합니다. 관찰할 두 지점을 정하되 방문객의 얼굴이나 개인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20분 · 관찰

아이와 그늘·의자·소리·이동 편의의 차이를 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사진을 찍지 않고 공간의 특징만 스케치합니다.

10분 · 쉬기

가족이 편한 곳에서 쉽니다. 자리가 없다면 돌아오는 길에 기록해도 됩니다.

20분 · 설명

“벤치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는 추측입니다. “벤치가 세 개 있었다”는 관찰입니다. 두 문장을 구분해 적습니다.

준비물: 종이 한 장, 연필, 물. 비용과 실제 소요 시간은 장소·이동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를 함께 설계하기

장소보다 먼저 질문을 고르면 체험이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

01

1. 가고 싶은 곳보다 알고 싶은 것을 먼저 묻기
2. 한 사람의 소원을 하루 동선으로 바꾸기
3.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참여의 손잡이
4. 출발 전 한 장 계획서 완성하기

읽고 나면 남는 것

네 가지 실전 해설을 읽고 활동 하나를 고르세요. 워크북의 관련 양식에 가족의 실제 조건과 아이가 한 말을 적습니다. 모든 예시는 작성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고 싶은 곳보다 알고 싶은 것을 먼저 묻기

체험학습 계획은 장소 검색이 아니라 가족 질문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무엇을 보고 싶은지, 왜 궁금한지,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를 적으면 화려한 장소가 아니어도 배움의 방향이 생긴다. 질문은 답이 있는 퀴즈보다 현장에서 살피볼 수 있는 형태가 좋다.

부모가 목표를 완성해서 알려 주기보다 가족이 각자 궁금한 것을 한 장씩 적는다. 비슷한 질문은 묶고, 서로 다른 질문은 없애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심 질문 하나와 개인 질문 하나씩을 남긴다. 중심 질문은 하루의 나침반이고 개인 질문은 각자의 선택권이다.

좋은 질문은 눈과 귀로 확인할 단서가 있다. 이곳은 재미있을까보다 이 공간은 사람이 멈추게 하려고 무엇을 배치했을까가 기록하기 쉽다. 현장에서 답이 바뀌어도 실패가 아니다. 예상과 다른 점을 찾는 순간부터 탐구가 시작된다.

함께 해보기

가족이 각자 궁금한 점을 두 개씩 적고, 관찰 가능한 낱말에 밑줄을 긋는다. 겹치는 낱말을 이용해 중심 질문 한 문장과 개인 질문을 정한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가족이 낸 질문은 오래된 물건은 왜 남길까, 동생은 무엇을 만져 보고 싶을까, 안내판은 누가 만들까였다. 중심 질문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게 할까로 정했다. 현장에서 물건, 안내판, 사람의 행동을 각각 한 가지씩 찾기로 했다.

한 사람의 소원을 하루 동선으로 바꾸기

가족 회의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소원이 계획 전체가 되기 쉽다. 이를 막으려면 각자 꼭 하고 싶은 것 하나, 해도 좋은 것 하나, 힘들 것 같은 것 하나를 말한다. 세 항목은 취향만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동 속도, 소음, 대기, 식사 시점 같은 조건을 드러내는 도구다.

모든 소원을 같은 날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이번에 반영할 항목과 다음 기회로 넘길 항목을 구분하고 이유를 남긴다. 핵심 활동은 두 개 정도로 좁히고,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백을 둔다. 여백은 낭비가 아니라 관찰을 마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동선은 시계표보다 선택 가지로 만든다. 에너지가 충분하면 다음 구역으로 가고, 피곤하면 짧은 활동으로 바꾸며, 불편함이 커지면 종료한다. 아이가 계획 변경을 실패로 느끼지 않도록 출발 전에 바꾸는 기준을 합의한다.

함께 해보기

가족 구성원별로 꼭 하고 싶은 것, 양보 가능한 것, 부담되는 것을 표에 한 줄씩 쓴다. 공통 소원 두 개와 변경 기준 한 개를 골라 동선에 표시한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초등 5학년은 전시 해설, 2학년은 체험 코너, 보호자는 천천히 기록하기를 원했다. 가족은 첫 활동을 함께 보고 이후 열다섯 분을 각자 선택 시간으로 두었다. 누군가 쉬고 싶다고 말하면 다음 구역 대신 조용한 자리에서 사진 세 장을 골라 이야기하기로 했다.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참여의 손잡이

기록 담당, 길 찾기 담당, 질문 담당처럼 역할을 나누면 아이는 따라가는 사람에서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나 역할이 별점이나 감시가 되면 참여감이 줄어든다. 역할은 짧고 분명하며 일정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역할은 능력에 따라 고정하지 않는다. 글을 잘 쓰는 아이만 기록하게 하면 다른 방식의 표현이 사라진다. 사진 한 장 고르기, 색 이름 붙이기, 휴식 신호 확인하기, 이동 전 소지품 세기처럼 여러 감각과 강점을 쓰는 역할을 준비한다. 중간에 역할을 바꾸는 교대 지점도 정한다.

부모의 역할은 정답 제공자가 아니라 안전과 시간의 경계를 지키는 진행자다. 아이가 묻는 즉시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 되묻고, 모르면 함께 안내 자료를 찾는다. 가족이 알게 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동시에 기록하면 솔직한 학습이 된다.

함께 해보기

역할 카드 네 장을 만든다. 각 카드에 할 일 한 가지, 끝나는 시점, 도움이 필요할 때 쓸 말을 적는다. 가족이 역할을 고르고 하루 중 한 번 교대한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2학년은 색깔 발견자, 5학년은 질문 수집가, 보호자는 시간·안전 담당을 맡았다. 색깔 발견자는 파란색 물건 두 개를 골랐고 질문 수집가는 왜 파란색이 반복되는지 적었다. 답을 단정하지 않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한 뒤 역할을 바꾸었다.

출발 전 한 장 계획서 완성하기

좋은 계획서는 길지 않다. 중심 질문, 핵심 활동, 관찰 방법, 휴식과 식사, 변경 기준, 준비물만 한 장에 담는다. 항목이 많아지면 현장에서 계획을 지키는 일이 목적이 된다. 계획서는 가족을 평가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선택을 돕는 지도여야 한다.

현장 정보를 확인할 때는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영 시간, 예약 여부, 반입 규칙, 이동 방법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책에 적힌 특정 시간이나 비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확인한 날짜와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함께 표시하면 추측을 사실처럼 다루지 않게 된다.

준비물도 질문과 연결한다. 무조건 많이 챙기기보다 연필, 작은 받침판, 물, 날씨에 맞는 물품처럼 실제 활동에 필요한 것을 고른다. 촬영이나 채집은 허용 여부를 먼저 살핀다. 기록을 못 해도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남긴다.

함께 해보기

중심 질문 한 줄, 핵심 활동 두 개, 휴식 지점 하나, 계획 변경 기준 하나, 공식 안내 재확인 항목 세 개로 가족용 한 장 계획서를 만든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중심 질문은 오래 머물게 하는 공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였다. 핵심 활동은 입구와 안쪽 공간 비교, 가족이 멈춘 곳 표시였다. 소음이나 피로가 커지면 두 번째 활동을 생략하기로 했다. 운영 정보와 촬영 규칙은 출발 전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고 적었다.

관찰 문장과 추론 문장 분리하기

관찰은 감각이나 도구로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관찰을 바탕으로 생각한 설명이다. 잎이 축 처져 있다는 관찰이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말은 추론이다. 추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둘을 섞어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가족 기록에는 보았다, 들었다, 만져 보니처럼 관찰을 알리는 말과 아마, 가능성이 있다, 더 확인해야 한다처럼 추론을 알리는 말을 구분해 쓴다. 추론 하나에 관찰 근거가 무엇인지 연결하고, 다른 설명도 가능한지 묻는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른다고 남긴다. 현장에서 자료를 더 찾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길 수 있다. 부모가 곧바로 정답을 검색해 주면 아이가 증거의 빈틈을 느끼는 시간이 사라진다. 먼저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지 아이가 정하게 한다.

함께 해보기

대상 하나를 삼십 초 동안 보고 관찰 문장 세 개와 추론 문장 한 개를 쓴다. 추론 밑에는 근거가 된 관찰과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씩 적는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관찰은 돌 아래쪽이 위쪽보다 어둡고 축축하다, 작은 벌레가 두 마리 움직였다였다. 추론은 햇빛이 덜 닿아 물기가 오래 남았을 가능성이 있었다였다. 확인하려면 시간대별 빛의 방향과 주변 다른 돌의 상태를 더 살펴야 한다고 썼다.

채집 대신 머무르며 보는 자리 만들기

생태 체험의 목적은 자연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다. 허용 여부를 모르는 식물, 돌, 깃털, 곤충은 가져오지 않는다. 정해진 길과 시설 안내를 따르고, 관찰을 위해 서식처를 뒤집거나 생물을 쫓지 않는다.

한 지점에 조용히 머무르는 관찰 자리를 정한다. 보이는 범위를 작은 창처럼 설정하고, 처음 눈에 띈 것에서 배경의 움직임으로 시선을 넓힌다. 짧은 시간이라도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보면 지나가며 볼 때 놓친 변화가 드러난다.

가족이 발견을 경쟁하면 큰 소리와 빠른 움직임이 늘어난다. 몇 개 찾았는지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인 것을 말한다. 생물을 찾지 못해도 빛, 바람, 습기, 흔적을 기록하면 그 공간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함께 해보기

안전하고 허용된 관찰 자리에서 오 분 동안 머문다. 첫 일 분과 마지막 일 분에 보인 것, 들린 것, 달라진 것을 각각 적고 손대지 않은 이유도 한 줄 남긴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처음에는 마른 잎과 나무줄기만 보였다. 조용히 머무르자 잎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고 위쪽에서는 짧은 새소리가 들렸다. 생물 이름은 확인하지 못해 억지로 붙이지 않았다. 낙엽을 들추면 숨은 생물을 방해할 수 있어 제자리에서 보았다고 기록했다.

총액보다 선택의 이유가 보이는 예산

가족 예산은 입장 관련 비용만이 아니라 이동, 식사, 준비물, 예비비까지 본다. 금액은 방문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확인 날짜를 적는다. 할인이나 무료라는 표현도 적용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하지 않는다.

예산을 아이에게 공개할 때 절약을 벌처럼 만들지 않는다. 꼭 필요한 항목, 선택 가능한 항목, 이번에는 하지 않을 항목으로 나누고 가족 질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출이 무엇인지 고른다. 기념품 대신 사진 한 장과 기록 카드처럼 비용이 들지 않는 기억 방법도 생각한다.

예산보다 비용이 늘 때 무엇을 줄일지 미리 정한다. 안전과 기본 필요를 먼저 지키고, 선택 활동을 조정한다. 아이에게 돈 걱정의 책임을 넘기지는 않되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나눈다.

함께 해보기

이동, 이용, 식사, 준비, 예비 항목으로 예산표를 만든다. 필요, 선택, 보류 표시를 붙이고 비용이 바뀌면 먼저 조정할 선택 항목 하나를 가족이 정한다.

작성의 단서

가상 예시: 가족은 유료 추가 활동과 현장 간식이 모두 선택 항목임을 확인했다. 중심 질문에 직접 필요한 추가 활동을 남기고 간식은 준비해 가기로 했다. 실제 금액은 적어 두지 않고 방문 전 공식 안내와 교통 정보를 다시 확인할 칸을 만들었다. 예비비는 다른 활동비로 미리 쓰지 않기로 했다.

동네 도서관: 질문이 자라는 책 탐험

5~7세 아동과 보호자 1명, 예상 비용 0원(대출증·교통비 제외) · 총 90분

가상 설계 예시로, 책의 표지·분류 표지·그림 단서를 아동이 스스로 연결해 관심 주제를 말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1정거장·입구 안내판(25분): 오늘 찾고 싶은 주제를 아동이 한 단어로 정하고, 층별 안내에서 갈 곳을 직접 표시한다. 보호자는 운영 규칙과 비상구를 함께 확인한다.

2정거장·어린이 자료 구역(35분): 같은 주제의 책 세 권을 표지와 목차만 보고 비교한 뒤 아동이 한 권을 선택한다. 10분 읽고 가장 궁금한 장면에 종이 표지를 붙인다.

3정거장·열람 또는 휴게 공간(30분): 선택한 장면을 네 칸 그림으로 다시 구성하고, 다음 방문에 찾을 질문 한 개를 아동의 말 그대로 기록한다. 마지막 5분은 정리와 대출 여부 결정에 쓴다.

아이에게 건네는 질문

어떤 표지 단서 때문에 이 책을 먼저 보고 싶었어? / 네가 사서라면 이 책을 어느 표지판 아래에 두고 싶어? /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네가 바꾼다면 무엇을 바꾸겠어?

남기는 결과물

아동이 고른 책 1권, 선택 이유 한 문장, 네 칸 그림, 다음 질문 1개를 한 장의 탐험 기록지에 남긴다.

날씨·이동 부담이 있을 때

비가 오면 실내 동선 그대로 진행한다. 소음·이동 부담이 있으면 입구에서 가까운 책 5권을 사서에게 요청하거나 전자도서관 미리보기와 집 안 세 정거장 활동으로 바꾼다.

이 동선은 실제 시설을 확인한 추천이 아닌 가상 설계 예시다. 방문 전 해당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운영일·휴관·대출증·유아 공간·엘리베이터·주차·촬영 규정을 확인한다.

동네 시장: 만 원 안에서 선택하는 생활 수학

7~9세 아동과 보호자 1명, 구매 예산 최대 10,000원 · 총 120분

가상 설계 예시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격·수량·필요를 비교하고 아동이 구매 결정을 설명한다.

1정거장·시장 입구(30분): 살 수 있는 품목 후보 세 가지와 예산 10,000원을 기록하고, 아동이 지출 봉투를 '살 것·남길 돈'으로 나눈다. 혼잡 시 만날 지점도 정한다.

2정거장·서로 다른 두 판매 구역(45분): 같은 종류 상품 두 곳의 가격·단위·상태를 묻고 표에 적는다. 구매 압박을 주지 않고, 질문과 감사 인사는 아동이 직접 한다.

3정거장·공용 휴게 지점(45분): 후보의 가격과 쓰임을 비교해 한 가지 이하만 구매하고 잔액을 계산한다. 마지막 15분에는 영수증 또는 손기록으로 선택 근거를 정리한다.

아이에게 건네는 질문

가격 말고도 무엇을 보고 고르고 싶어? / 예산을 모두 쓰지 않는 선택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 판매자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야?

남기는 결과물

비교표 1장에 품목별 가격·단위·선택 이유·잔액을 적고, 아동이 '내 선택 규칙' 한 문장을 완성한다.

날씨·이동 부담이 있을 때

비·폭염·혼잡 시 실내 상점이나 온라인 전단의 공개 가격표로 모의 구매를 한다. 휠체어·유모차 이용 시 턱이 적은 통로 한 구간만 선택하고 휴게 지점을 먼저 확보한다.

이 동선은 특정 시장을 검증한 것이 아닌 가상 설계 예시다. 방문 전 시장 공식 안내 또는 관할 기관에서 영업일·결제 수단·화장실·휴게 공간·보행 접근성·사진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질문이 있는 일 년

01-04주 · 매주 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이어가거나 쉬어도 좋습니다.

01주 · 우리 집 관찰 규칙

집 안 한 공간에서 '본 것'과 '추측한 것'을 각각 세 가지 찾아 구분한다. 남길 것: 두 칸 관찰표와 가장 어려웠던 구분 1개

02주 · 질문 수집

하루 동안 떠오른 질문을 모으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고른다. 남길 것: 질문 5개와 선택 이유 한 문장

03주 · 안전한 동선

자주 가는 길에서 기준점·휴식점·도움 요청 지점을 보호자와 찾는다. 남길 것: 개인정보 없는 화살표 지도 1장

04주 · 색의 분류

실내외 물건 열두 개를 색 이름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 무리로 나눈다. 남길 것: 분류 기준과 예외 1개

공식 정보 확인 노트

접속 확인: 2026-09-22 · 정책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박물관 예약·관람 안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안내. 시설별 예약 규칙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다른 시설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104010000.do?act=intro&schM=child>

재난·기상에 따른 계획 변경

국민안전24 국민행동요령. 방문지의 특보·통제와 현장 지침을 우선 확인한다. 본문은 일반적인 계획 세우기를 다루며 응급 대응 매뉴얼이 아니다.

<https://www.safekorea.go.kr/safekorea-kor/main/main.do>

출처와 독창적 내용의 구분

이 책의 질문·활동·가상 사례·워크시트는 본 제작을 위해 작성했다. 공식 자료를 인용한 연구 결과나 교육 효과를 주장하지 않는다. 외부 기관의 인증·추천·공동 제작물이 아니다.